

대규모 아파트 단지(송파 헬리오시티)내 가락일중학교 설립 요구청원 제 안 설 명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김생환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가락아파트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송파구 제4선거구 출신 강감창 의원입니다.

“대규모 단지(송파 헬리오시티)내 가락일중학교 설립 요구청원”의 소개의 원으로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 합니다.

송파구의 대규모 재건축 단지인 헬리오시티가 2018년 12월 입주 예정인 상태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단일단지 국내 최대규모인 9,510세대로, 입주가 예정대로 진행되면 대략 3만 여명이 넘는 주민들이 살게 될 것입니다. 입주가 예정 되어 있는 가락1동 뿐만 아니라 송파구 전체의 생활환경에도 커다란 변화가 예상됩니다.

문제는 2019년에 강동송파교육지원청 추산하여 초등학생 약 3,000여명, 중학생 1,700여명, 고등학생 1,300여명의 학생들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육수요가 급증하는 만큼 이에 대한 대응책 수립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교육청과 강동송파교육지원청에서는 가구당 중학생 유발비율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추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중학교 신설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아파트 단지 내 가일중학교 신설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락일중 신설안이 1차 중앙투자심사위에서 재심의 결정에 이어 2차 심의에서도 신중하게 검토되고 있다는 분위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차원의 적극적인 대응과 명확한 입장표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학령인구 감소로 인하여 신설학교가 필요 없다는 교육부 주장이 받아들여

지면, 가락일중학교 학생들은 주변학교로 분산배치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학군내 분산배치 가능한 중학교의 학급당 인원이 평균 41명을 초과하는 수준으로 급증하여 정상적인 학교운영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송파 헬리오시티 단지내 중학생 1,700여명은 물론, 인근지역 학생들까지 교육환경이 악화되는 결과가 초래될 것입니다.

시기적으로도 매우 촉박하여 교육대란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2018년 말 입주가 완료되면 이듬해 3월에 개교를 해야 합니다. 남은 2년 동안 행정절차와 설계, 시공에 이르기까지 촉박한 시간을 고려하여 교육부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빠른 결정을 촉구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교육은 아무리 어려운 국난의 시기에도 가장 중요하게 여겨온 국가의 대계입니다. 학령인구의 감소로 인해 학교 신설에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명백하게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건설로 인해 학생 수가 급증하는 현실을 앞에 두고 이를 회피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만약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가일중학교 신설안이 또다시 지연되거나 반려 된다면 추후 발생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는 그 책임이 명백하게 교육부에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청원서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본 청원을 제출한 지역 주민들의 간절한 마음을 십분 이해하시어 본 청원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